

稼軒 隱居時期的 詞作內容 小考*

林承垸**

◁ 목 차 ▷

- | | |
|----------------|-------------|
| I. 緒論 | 3. 憤懣心情的 묘사 |
| II. 隱居時期的 詞作內容 | 4. 達觀心情的 묘사 |
| 1. 自然風光的 묘사 | III. 結語 |
| 2. 農村風俗의 묘사 | |
-

I. 緒論

稼軒 辛棄疾은 金의 침략으로 北宋이 망한 후 13년이 지난 紹興 10年(1140년)에 金의 점령지인 濟南에서 태어나 23세 때인 紹興 32年(1162년)에 南宋으로 귀의하여 開禧 3年(1207년)에 68세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당시 南宋은 對外的으로는 金과 和戰을 반복하던 시기였고, 對內的으로는 主和派와 主戰派의 대립이 격렬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비록 지방관으로 있었지만 애국심에 불타 南宋의 편안한 국면에 안주하는 인사들을 통렬히 비난하고 증원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던 稼軒은 당시 實權을 쥐고있던 主和派의 排斥으로 탄핵이 되어 2차례에 걸쳐 근 20년 동안에 걸친 長期間 隱退生活을 하게 된다. 가현이 43세 때인 淳熙 8年(1181년)에 1차 탄핵되어 11年, 56세 때인 慶元 元年(1203년)에 2차 탄핵되어 8年 동안을 한적한 농촌인 信州 上饒縣의 帶湖와 鉛山 期思村의 瓢泉에 은거하게 되면서 은거생활의 심정을 담은 詞作을 대량으로 창작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지은 작품 수는 가현 전체 작품 630餘首 중 3분의 2 가량을 점하고 있다.

가현은 落職隱居 時期에 美麗한 자연경관을 즐기며 정신적 평정을 얻고 순박한 농촌생활에 애착을 갖고 安分自足하며 생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41살의 한창

* 이 논문은 1999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 원광대학교 중문과 부교수

일할 나이에 本意 아닌 은퇴로 자신의 壯志와 抱負를 실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고민과 갈등을 하며 정신적 방황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 속에서 소요하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작품을 분석해보면 표현된 내용들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은거시기에 한적한 농촌생활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전원에서 安分自足하는 심정을 담은 작품과 한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평생의 壯志와 抱負를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한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은거시기의 모든 작품내용을 세세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본고에서는 '田園風光의 묘사' '農村風俗의 묘사' '憤懣心情的 묘사' '遠觀心情的 묘사'로 분류하여 이들 내용이 비교적 선명하게 묘사된 대표적 작품들을 중심으로 가한 은거시기의 詞作內容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隱居時期的 詞作內容

1. 自然風光의 묘사

稼軒은 20여년의 은거생활을 信州 上饒縣의 帶湖와 鉛山 期思村의 瓢泉에서 보냈는데, 한적한 농촌일뿐만 아니라 주위의 경관이 아름다워 隱居할 때 지은 작품 중에 한적한 전원풍경이나 주위 山川의 경치를 묘사한 詞作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작품 중에는 단순히 자연풍광을 수식없이 묘사한 것 외에 자연풍광을 묘사하면서 자신이 은거생활 중에 느끼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감정과 정서를 은근히 표출한 작품도 많이 있지만, 長期間의 田園生活 중에 번뇌를 잊고 자연과 벗하며 세속을 초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平靜을 얻고 自足하며 은거생활을 즐기면서 수려한 산수풍광과 한적한 전원풍경을 비교적 사실적이고 담담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을 창작했다.

이 시기의 詞作 중 계절에 따라 나뉠대로의 특색이 있는 한가로운 농촌의 여름 밤 풍경을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잘 묘사한 〈西江月·夜行黃沙道中〉을 우선 예로 들어 보면:

明月別枝驚鷓,
清風半夜鳴蟬.
稻花香裏說豐年.

밝은 달빛에 가지 위에 깃든 까치 놀라 날고,
맑은 바람에 한밤중에 매미 우네.
벼 익는 향기 속에 풍년을 말하다가.

聽取蛙聲一片。

조용히 개구리 울음소리 들어보네.

七八個星天外。

하늘 저편에는 예닐곱개 별들 빛나는데,

兩三點雨山前。

앞산 마루에는 두세개 빗방울 떨어지네.

舊時茄店社林邊。

낮익은 사당 樹林 옆 客店.

路轉溪橋忽見。

시내 다리 건너 길모퉁이 도니 갑자기 나타나네.

이 작품은 帶湖에서 은거할 때 지은 작품으로 농촌의 여름 밤 풍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는데, 놀란 까치와 한밤에 우는 매미 울음소리에서 들켜에는 밤이지만 아직 활동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늘 저편의 성근 별과 산마루의 빗방울에서 평온한 달밤이지만 순간순간 변화하는 날씨를 알 수 있으며, 맑은 바람에 실려오는 벼 향기와 귤가에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에서 풍성한 수확을 예감하며 풍년을 기대하는 농민의 심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작품 〈鷓鴣天·代人賦〉에서도 농촌의 봄풍경을 수식없이 묘사하면서 전원생활에 자족하는 심정을 표출했다:

陌上柔桑破嫩芽，
東隣蠶種已生些。
平岡細草鳴黃犢，
斜日寒林點暮鴉。

길가의 뽕나무 어린 새싹 내밀고,
인근 동쪽 집의 누에는 이미 부화했네.
평평한 언덕 부드러운 풀밭에는 누런 송아지 울고,
석양 및 비치는 쓸쓸한 숲속엔 까마귀 나네.

山遠近，
路黃斜，
靑旗沽酒有人家，
城中桃李愁風雨，
春在溪頭薺菜花。

가까운 봉우리 그리고 먼산,
비스듬이 굽은 길,
푸른 깃발 내건 마을 주막,
성안의 복숭아꽃·배꽃은 비바람 걱정하지만,
개울가 냉이 꽃엔 春光이 가득하네.

작품의 마지막 「城中桃李愁風雨，春在溪頭薺菜花」二句에서 비바람 걱정하는 화려한 城안의 복숭아꽃·배꽃과 비록 외진 시골 개울가에 피었지만 봄별을 가득 받는 냉이꽃을 대비시켜,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지내는 은거생활에 자족하는 심정은 은유적으로 표출했지만, 全篇에 평온한 농촌의 봄풍경을 한쪽의 그림을 그리듯이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농촌의 계절에 따른 풍경을 묘사한 작품 외에 은거지 주위 山川景觀을 그림을 그리듯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도 많이 있는데, 石門 가는 도중에 주변 山川風光의 아름다움을 한쪽의 그림처럼 묘사한 〈鷓鴣天·石門道中〉을 예로 들면:

山上飛泉萬斛珠，
懸崖千丈落颺龜。
已通樵徑行還礙，
似有人聲聽却無。

산위의 샘물은 만 섬의 구슬 쏟아내고,
天丈의 벼랑에는 날다람쥐 뛰어 내리네.
나뭇꾼 샅길은 있다가는 끊기고,
사람소리 들리는 듯하여 귀 기울이면 오히려 적막하네.

閑略約，
遠浮屠。
溪南修竹有茅廬。
莫嫌杖屨頻來往，
此地偏宜著老夫。

한적한 외나무 다리,
멀리 떠있는 듯 보이는 山寺.
개울 남쪽 대나무 숲에는 초가집.
지팡이에 짚신 신고 빈번히 왕래하는 것 싫어하지 마소,
이 곳이 이 늙은이 지내기엔 너무 좋으니.

이 작품은 石門으로 가는 도중에 본 雄壯하고 秀麗한 山水景物을 한 폭의 풍경 화처럼 그려냈는데, 작자는 아름다운 山水를 생동감있게 묘사하면서 인적없는 전원에서 자연과 벗하며 悠悠自適하는 심정을 표출했다. 또 帶湖 은거시에 지은 〈江神子·博山道中書王氏壁〉上片에서는 博山으로 가는 도중에 본 아름다운 주위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一川松竹任橫斜，
有人家。
被雲遮。
雪後疏梅，
時見兩三花。
時見兩三花。
比著桃源溪上路，
風景好，
不爭些。

개울가엔 온통 제멋대로 기울어진 소나무 대나무,
人家는,
구름에 가려져 있고,
눈 은 뒤 성긴 매화가지엔,
꽃 두 세 송이 이따금 보이네.
桃源 개울 길에 비해도,
좋은 풍경,
손색이 없네.

博山은 江西廣信府 廣豐縣¹⁾ 西南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현이 上饒에 閑居할 때 博山寺 근처에 「稼軒書屋」을 지어놓고 자주 가서 독서하던 곳으로, 가현은 이곳을 왕래하면서 박산의 수려한 景觀에 반해 十餘 수의 작품에 박산의 경치를 묘사했다. 이 작품도 그 중의 하나로 桃花源의 개울 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느끼는 博山의 수려한 풍경을 사실적으로 한폭의 동양화처럼 그려냈는데, 稼軒의 또 다른 작품 〈醜奴兒近·博山道中，效李易安體〉에서도 博山 주변의 경치를 평이한 필치로 묘사했다:

1) 《清一統志·江西廣信府》: 「박산은 평풍현 서남 삼십여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으로는 계곡에 붙어있고, 멀리서 보면 마치 廬山의 향로봉 같다. (博山, 在廣豐縣西南三十餘里, 南臨溪流, 遠望如廬山之香爐峰.)」朱德才 《辛棄疾詞選》 p68, 재인용

千峰雲起，
驟雨一霎兒價，
更遠樹斜陽風景，
怎生圖畫！
青旗賣酒，
山那畔別有人家，
只消山水光中，
無事過者一夏。

천 개 봉우리에 먹구름 일더니,
소낙비 한바탕 내리다가 곧 바로 그쳐,
저 멀리 樹林에 석양 빛 비치는 풍경,
어찌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주막의 푸른 깃발 나부끼는 걸 보니,
산 저편에는 또 다른 세상.
나는 단지 山水風光과 더불어,
한적하게 이 여름 보내고 싶네.

午醉醒時，
松窓竹戶，
萬千瀟灑，
野鳥飛來，
又是一般閑暇，
却怪白鷗，
저(虛見)著人欲下未下，
舊盟都在，
新來莫是，
別有說話？

낮술 깨고 나니,
창 밖의 소나무 대나무,
유달리 산뜻하고,
들새 날아드니,
더욱 더 한가로운데,
괴이하게도 白鷗는,
사람을 엿보며 내려 앉으려다 그만 두네,
옛 맹세 여전한데,
요즘 와서 혹시,
다른 할 말(생각)이 있는 건 아니겠지?

上片은 「驟雨一霎兒價」句와 「無事過者一夏」句에서 소나기 막 그친 박산의 여름날 저녁무렵 풍경을 묘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上片 「青旗賣酒」句에 이은 「午醉醒時，松窓竹戶」句에서 下片은 주막 주위의 한가로운 경치를 묘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작자 자신이 그림으로도 다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博山 주변의 수려한 풍경과 주막 주위의 한적한 풍경을 평이한 필치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한적한 전원엔 은거하여 자연과 더불어 悠悠自適하며 自足하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다.

2. 農村風俗의 묘사

辛棄疾의 隱居時期 詞作 중에는 단순히 은거지에서 주야로 접할 수 있는 주위 산수풍광이나 農村風景만 묘사한 작품도 있지만, 통상 자연경관을 묘사하는 중에 왕왕 순박하고 근면한 농촌의 풍속습관을 가미하여 묘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면은 稼軒이 은거기간 중에 순박한 농촌사람들과 친솔하게 어울리며 농촌풍속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한데, 가헌은 자연경관과 농촌풍속을 작품 속에 잘 조화시켜 농촌의 정경을 완전하고 선명하게 묘사했다. 淳熙 16年(118

9)에 帶湖에서 지은 <鵲橋仙·己酉山行書所見>(松岡避暑)下片을 예로 들어 보면:

東家娶婦.	동쪽 집에선 며느리 맞고,
西家歸女.	서쪽 집에선 딸 시집 보내니.
燈火門前笑語.	문 앞엔 환한 등불 집안엔 웃음 꽃 가득.
釀成千頃稻花香.	천 이랑 벼꽃 향기 빚어내기 위해,
夜夜費·一天風露.	밤마다 온 하늘에 이슬 내리네.

농촌의 풍속에 의하면 인근 마을사람 끼리 시집 보내고 며느리로 맞이하며 사돈을 맺는 것은 굉장히 큰 행사로 온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마시고 춤추며 성대한 경축행사를 갖는 것이 보통인데, 가현은 이 작품에서 짧은 몇 구절로 농촌 사람들의 다정하고 열정적이며 순박한 민간풍속을 그려냈다. 또 한 작품<鷓鴣天·戲題村舍>에서도 인근 마을사람들 끼리 서로 혼인을 하여 사돈을 맺는 풍속이 그려져 있다:

鷓鴣成群晚未收.	닭오리 떼지어 저녁까지 돌아 다니고,
桑麻長過屋山頭.	뽕나무와 마는 옹마루까지 자라났네.
有何不可吾方羨.	구속 없이 지내는 이런 생활 부럽구나.
要底都無飽使休.	그 무엇도 필요없이 배부르면 쉬는 그런 삶이.

新柳樹.	새로 심은 버드나무.
舊沙洲.	여전한 모래톱.
去年溪打那邊流.	작년엔 개울이 저쪽에서 흘렀었지.
自言此地生兒女.	자기들끼리 말한다네, 이곳에서 아들 딸 낳아.
不嫁余家即聘周.	余씨 집에 시집 보내거나 周씨 집에서 며느리 돌일거라고.

上片에서는 별다른 욕망없이 그저 安分自足하는 농촌사람들의 순박한 생활풍속을 그렸으며, 下片에서는 예나 변함없는 평온한 농촌 풍경을 그리면서 余氏 집이나 周氏 집이나 가까운 인근 마을 사람들과 혼인을 하여 사돈을 맺는 농촌의 풍속습관을 표현했다. 이외에 역시 帶湖에서 지은 <清平樂·檢校山園書所見>(連雲松竹) 上片을 보면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 풍습을 묘사했다:

連雲松竹.	하늘로 뻗어 구름과 닮은 듯한 소나무 대나무,
萬事從今足.	세상만사 지금부터는 더 바랄 것 없이 족하다네.
拄杖東家分社肉.	지팡이 짚고 東家에 가서 제사고기 나눠 주고,
白酒牀頭初熟.	침대머리에 놓아둔 白酒도 막 익었다네.

西風梨葉山園.	가을 바람 부니 山園엔 밤 대추 여무는데,
---------	-------------------------

兒童儻把長竿.	아이들은 긴 장대로 물래 따가네.
莫遣旁人驚去.	절대 아이들 놀라 도망가게 하지 마시오.
老夫靜處閒看.	이 늙은이 조용한 곳에서 한가이 지켜보고 싶다네.

당시 옛부터 내려오던 風俗²⁾에 의하면 매년 봄가을 두차례 정해진 날자인 春社日과 秋社日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가축을 제물로 土神에게 祭祀를 지낸 후 마을 사람들이 제사고기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³⁾ 평안하고 한적한 농촌생활을 표현하면서 옛부터 내려오는 민간 풍속을 자연스럽게 묘사했다. 또 〈鷓鴣天·鵝湖歸, 病起作〉 下片을 보면 寒食을 전후에서 부너자가 친정에 가는 풍습을 묘사했는데:

攜竹杖.	죽장 짚고.
更芒鞋.	짚신 신고 걷는 데.
朱朱粉粉野蒿開.	길가에 회고 붉은 야생 쑥 꽃 피어있네.
誰家寒食歸寧女.	어느 집 색시인지 한식날 친정가는 아낙네.
笑語柔桑陌上來.	맑게 웃고 떠드는 소리 뽕나무 밭 길가에서 들려오네.

한적한 농촌경경과 전원생활의 平靜自足한 심정을 읊으면서 古代에 한식날을 前後하여 부너자들이 밝고 명량한 모습으로 친정에 가는 풍습을 그려냈음을 알 수 있다.

3. 憤懣心情的 묘사

가현 신기질의 隱居는 본인이 은거생활을 동경하여 自意的으로 행한 은거가 아니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주위의 배척으로 理想과 抱負를 실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落魄隱居하게 된 것이어서 田園에 귀의한 뒤 세속의 功名을 완전히 잊고 자연 속에서 소요하며 平靜自足한 심정으로 은거지에서 유유자적하며 진정으로 전원생활을 즐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가현은 전원엔 은거한 후에 한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하면서도 失意와 좌절, 울분과 번뇌, 懷才不遇의 감개 등 안타까운 심정을 자신의 작품 속에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은근하고 완곡하게 표출했다.

2) 《荊楚歲時記》：「제사일에 인근 마을 사람들이 가축과 좋은 술을 가지고 모여 나무아래 제단을 만들어 먼저 제사 지낸 후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 (社日, 四隣并結綵會社牲部, 爲屋於樹下, 先祭神, 然後饗其胙.)」 劉斯奮 《辛棄疾詞選》 p66, 제인용

3) 下片의 가을바람(西風) 구절로 봐서 秋社日로 추정 됨.

우선 가천이 淳熙 16年(1189年) 帶湖 隱居時에 지은 작품으로 가장 직설적이고 강렬하게 愛國壯志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두편의 〈賀新郎〉을 예로 들면:

〈賀新郎·同父見和，再用韻答之〉

老大那堪說。
似而今·元龍臭味，
孟公瓜葛。
我病君來高歌飲，
驚散樓頭飛雪。
笑富貴千鈞如髮。

硬語盤空誰來聽?
記當時·只有西窗月。
重進酒，
換鳴瑟。

事無兩樣人心別。
問渠儂，
神州畢竟，
幾番離合?
汗血鹽車無人顧，
千里空收駿骨。
正目斷·關河路絕。
我最憐君中宵舞，

道男兒·到死心如鐵。
看試手，
補天裂。

나이 먹은 것 차마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대 지금도 豪氣 있는 元龍⁴⁾의 멋 풍기고,
(賓客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孟公⁵⁾과 닮은 점 있네.
나 병났을 때도 그대가 와서 같이 高歌痛飲하며,
누각 위로 날리는 눈 놀라 흩어지게 했었지.
부귀를 千鈞처럼 여기는 것 비웃으며

머리카락처럼 가볍게 알았지.
강직한 소리 허공에 맴돌아도 그 누가 들겠는가?
생각하니 당시 西窗 밖 밝은 달뿐이었지.
거듭 술잔 권하고,
이 곡 저 곡 거문고 연주 계속했었지.

일은 하나인데 사람 마음은 각각이네.
그대에게 묻노니,
이 나라(神州)는 도대체,
몇 차례나 갈라졌다 합칠 것인가?
천리마가 소금수레를 끄나 아무도 거들며 보지 않고,
千里 밖에서 헛되이 駿馬의 뼈만 거둬 들이네.
아득히 멀리 바라보니 中原山河의 길 끊겨 있네.
내가 가장 존경하는 건 그대가 밤중에 일어나 춤춘 것인
데.
사나이 죽어도 마음은 철석 같다고 말을 했었지.
바라는 건 그대 손을 써서
찢어진 하늘 깎는 거라네.

淳熙 16年(1189年)에 帶湖 隱居時에 지은 작품으로 陳亮의 和答에 다시 和韻 해 보낸 것인데, 가천이 帶湖 隱居時 심적갈등을 표현한 많은 詞作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愛國壯志를 표출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上片에서는 陳亮과 姓이 같은 옛 名士 陳登과 陳遵을 거론하며 상대를 추켜 세우면서 두사람이 鵝湖에서 만나 意氣 投合하여 豪氣있게 어울리며 깊은 우정을 나누던 정경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의 憂國 衷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으며, 下片에

4) 三國時代의 豪士 陳登의 字.

5) 西漢의 名士 陳遵의 字, 성격이 豪放하고 술을 좋아하며 賓客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고 함.

서는 중원회복의 대업을 포기하고 구차하게 和議를 하며 현재의 평안함에 안주하는 조정 主和派 權奸들과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조정에 대한 불만의 심정을 드러내며 陳亮에 대한 한없는 기대를 표현했는데, 비록 본의 아니게 전원에 落職隱居하고 있지만 애국심과 공명심에 불타는 작자 자신의 懷才不遇의 감개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賀新郎·用前韻送杜叔高〉

細把君詩說，
恍餘音·鈞天浩蕩，
洞庭膠葛，
天文陰崖塵不到，
惟有層冰積雪，
乍一見·寒生毛髮，
自昔佳人多薄命，
對古來·一片傷心月，
金屋冷，
夜調瑟。

去天尺五君家別，
看乘空魚龍慘淡，
風雲開合，
起望衣冠神州路，
白日銷殘戰骨，
歎夷甫諸人清絕，
夜半狂歌悲風起，
聽鈔鈔·陣馬笳聞鐵，
南共北，
正分袂。

그대의 시를 자세히 評한다면，
餘韻은 마치 天上의 〈鈞天廣樂〉⁶⁾처럼 호탕하고，
洞庭湖에 울려퍼지는 〈咸池〉⁷⁾처럼 유희히 물결치듯 한다네，
천길 그늘진 벼랑에 티끌 이르지 못하고，
오직 층층히 쌓인 하얀 눈과 어둠처럼 高潔하다네，
처음 보면 차가움에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라네，
自古로 佳人은 대다수가 薄命한다는데，
옛부터 한 조각 달 바라보며 슬퍼했었지，
金屋 쓸쓸하여，
깊은 밤에 거문고 타네。

그대 家門은 남들과 달리 고귀한 가문，⁸⁾
고심하던 魚龍이 물속에서 하늘로 오를 때 보면，
風雲을 일으킨다네，
일어나 멀리 繁盛했던 중원 길 바라보니，
한낫 태양 아래 전사자들 뼈 덩구는네，
夷甫의 부류들 空理空談만 숭상하는 것 보니 한스럽네，⁹⁾
夜半에 미친 듯이 노래하니 슬픈 바람 일어，
쟁그렁 쟁그렁 처마 끝 風聲소리 들리는데，
조국의 남과 북은，
딱 갈라져 있구나。

역시 1189년 上饒를 방문한 杜叔高를 송별하며 지은 작품으로 上片에서는 杜叔

6) 鈞天廣樂：天上의 음악. 《史記·趙世家》에 기재되길 趙簡子가 꿈속에 천상을 돌아다니다 百神들과 《鈞天廣樂》을 감상했다 함. 朱德才 《辛棄疾詞選》，p111 참조
7) 《莊子·天運篇》에 기재되어 있길 黃帝가 洞庭湖畔에서 〈咸池〉를 연주했다 함. 朱德才 《辛棄疾詞選》，p111 참조
8) 《辛氏三秦記》：「城南韋·杜，去天尺五。」 劉斯奮 《辛棄疾詞選》 p86, 재인용
9) 夷甫：西晉 宰相 王衍의 字. 당시 사대부들이 老莊思想을 숭상하여 空理空談으로 나라를 망쳤다고 함.

高의 뛰어난 文才와 凡俗에 물들지 않은 고결한 인품을 찬미하면서 美人薄命의 비유를 들어 杜叔高의 懷才不遇를 同情하고 위로의 뜻을 표시했으며, 下片에서는 魚龍이 하늘에 오를 때 風雲을 일으키듯이 杜叔高에게 조국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 국면을 전환시키고 功業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진 참담한 현실 앞에서 중원회복의 대제는 세우지 않고 空理空談으로 세월을 보내는 조정의 權奸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상 예를 들은 두편의 〈賀新郎〉외에 2차 탄핵 후의 은거지인 瓢泉에서 지은 작품으로 추정되는 〈鷓鴣天·有客慨然談功名, 因追念少年時事, 戲作〉도 한적한 전원 생활에서 완전한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하고 고민과 갈등을 겪는 작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壯歲旌旗擁萬夫,
錦襜突騎渡江初。
燕兵夜娖銀胡鞞,
漢箭朝飛金僕姑。

젊었을 때는 깃발들고 數萬의 병사 거느리고,
錦衣 입고 敵 騎馬部隊 돌파하여 渡江했었지,
燕(金)의 병사는 밤중에 箭筒 정리하며 대비했지만,
漢의 군대는 날이 밝자마자 화살 날렸지.

追往事,
歎今非,
春風不染白髭鬚。
却將萬字平戎策,
換得東家種樹書。

지난 일 돌이켜 보니,
지금의 내가 한스러운데,
봄 바람도 흰 수염 다시 검게 물들이지 못하겠지,
數萬 字의 오랑캐 평정할 책략들 하는 수 없이,
이웃의 農書와 바꾸었다네.

대략 慶元 6年(1200년) 瓢泉 은거 時에 지은 작품으로 上片에서는 젊은 시절 수만의 병사를 이끌고 渡江 南下할 때 적군과의 격렬한 전투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묻혀져 있는 抗金報國의 심정을 은근히 표출했으며, 下片에서는 오랑캐를 평정하여 中原故土를 수복하는 愛國壯志를 펴지 못하고 草野에서 초라하게 늙어가는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金과의 抗戰과 失地恢復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는 南宋 朝廷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장난 삼아 짓는다고 했지만 上片의 과거와 下片의 현재를 강렬하게 대비시켜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 속에 머물고 있던 懷才不遇의 感慨를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4. 遠觀心情的 묘사

愛國心과 功名心으로 가득찬 稼軒이 본의 아닌 落職으로 전원에 정착한 뒤 세속의 시름을 완전히 잊고 자연 속에서 소요하며 한가롭고 평온한 은거생활에 自足하며 安貧樂道하는 생활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長期間의 田園生活 중에 순박한 농촌생활에 정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逍遙하며 은거생활에 적응하면서 老莊의 人生觀을 체득하게 되어 번뇌를 잊고 자연과 벗하며 세속을 초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平靜을 얻고 自足하며 은거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이러한 인생관의 변화는 억울한 落職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前인 隱居 初期의 작품보다는 자연과 벗하는 일정 기간의 전원생활을 경험한 뒤나 2차 탄핵 후의 은거지인 鉛山 瓢泉에서 晩年에 지은 詞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혹은 산수와 벗하며 安分自足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혹은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표출하며, 혹은 세속을 초월한 달관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淳熙 14년(1187年) 1차 탄핵으로 帶湖에 落職隱居하여 약 7年間の 전원생활을 한 뒤에 지은 <鷓鴣天·博山寺作>을 예로 들면:

不向長安路上行，
却教山寺厭逢迎。

味無味處求吾樂，
材不材間過此生。

寧作我，
豈其卿。
人間走遍却歸耕，
一松一竹眞朋友，
山鳥山花好兄弟。

장안 길로는 향하지 않고.(부귀공명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산사가 (빈번한 방문에) 나의 영접에 싫증낼 정도라네.

無味를 眞味로 여기며 나의 즐거움 구하고,
유능한 者와 무능한 者 사이에서 평범하게 내 생을 보내리라.

차라리 본래의 내 모습을 유지하지
어찌 저 公卿에 의탁하여 명성을 구하겠는가?
인간 세상 두루 돌아 다니다가 결국 귀은하여 밭을 가니,
소나무 하나, 대나무 하나가 진정한 친구요,
산새 산꽃은 정말 좋은 형제라오.

全篇에 걸쳐 隱居의 이유와 전원생활의 즐거움 등을 묘사했는데, 上片「味無味處求吾樂」句는 《老子》에서, 「材不材」句는 《莊子·山木篇》에서 用典을 취한 것으로 작자가 老莊사상의 영향을 받아 俗世의 번뇌를 잊고 無慾의 심정으로 유유자적하며 천명을 다하려는 達觀의 심정을 읽을 수 있고, 下片의 마지막 「一松一竹眞朋友，山鳥山花好兄弟」句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지내는 전원생활에 대해 자족하는 작가의 평온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또 한 작품을 예로 들면:

<行香子博山戲呈趙昌甫·韓仲止.>

少日嘗聞:	어렸을 적에 듣기를:
「富不如貧,	「富는 가난보다 못하고,
貴不如賤者長存。」	귀한 者는 천한 者보다 오래 못 산다고 하네.
由來至樂,	예로부터 지극한 즐거움은,
總屬閒人.	언제나 한가한 사람에게 속했다지.
且飲瓢泉,	잠시 瓢泉 물 마시고,
弄秋水,	秋水堂에서 놀다가,
看停雲.	停雲 堂 ¹⁰⁾ 에서 구경해야지.

歲晚情親,	나이 드니 정은 더욱 친밀해지고,
老語彌真.	노인내 말은 더욱 더 진실된다지.
記前時勸我懲慙:	전에 내게 은근히 권하던 말 기억이 나네:
「都休滂酒,	술 마시고 힘들어 말고,
也莫論文.	글도 논하지 말고,
把相牛經,	相牛經 ¹¹⁾ 과
種魚法,	고기 기르는 방법이나
教兒孫。」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던.

이 작품은 2차 탄핵 후 瓢泉 隱居時期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체의 榮慾과 浮沈, 울분과 실의를 잊고 담담하고 평온한 심경으로 安分自足하며 老年을 보내려는 작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稼軒의 이러한 達觀心情은 장기간의 은거생활 중에 체득한 莊子의 人生觀과 陶然明의 生活情趣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由來至樂, 總屬閒人」句에서 수많은 마음 속의 갈등과 번민을 겪은 생활 체험의 결과로 얻어진 자족의 심정을 느낄 수 있으며, 全篇에서 은거생활 중에 비록 진정한 정신적 해탈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모든 부귀공명을 잊고 超然하게 전원생활에 적응하며 安貧樂道의 심경으로 노년을 보내려는 작자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상 두 작품 외에도 〈卜算子·用莊語〉에서는 아예 全篇을 《莊子》의 語句를 사용하여 세상의 모든 일에 초연하고자 하는 달관의 심정을 표현했다:

一以我爲牛,	어떤 사람은 나를 소라고 하고,
一以我爲馬,	어떤 사람은 나를 말이라 하네.
人與之名受不辭,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 주면 사양하지 않고 받으니,

10) 秋水堂과 같이 瓢泉 은거지에 있는 중요 건축물 중의 하나로 鉛山縣 期思村 山上에 위치하고 주위에 松竹이 두루 심어져 있어 신기질 晩年에 휴식처로 이용했다 함. 劉斯奮 《辛棄疾詞選》 p109 p112 참조.

11) 書名. 《唐書藝文志》에 실려있는 甯威의 《相牛經》.

善學莊周者.	莊周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네.
江海任虛舟.	강과 바다에선 빈배에 내맡겨 두고,
風雨從飄瓦.	비바람에 기와 날아 떨어져도 내버려 두게.
醉者乘車墜不傷.	취한 사람 차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것은,
全得於天也.	하늘에서 온전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네.

역시 瓢泉 隱居 時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上片 「一以我爲牛, 一以我爲馬」 句는 《莊子》〈應帝王篇〉¹²⁾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下片의 「江海任虛舟」 句는 〈山木篇〉¹³⁾에서 用典을 취했으며, 「風雨從飄瓦」 句 이하 三句는 〈達生篇〉¹⁴⁾에서 용전을 취했다.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全篇이 《莊子》의 語句를 사용했는데, 이는 가현이 본의 아닌 낙직 은거생활의 번민과 울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莊子의 인생관을 체득하여 인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모든 일에 초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달관의 심정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III. 結語

稼軒 辛棄疾이 20여 년 동안 은거한 帶湖와 瓢泉은 주변 山水風光이 뛰어난 한적한 농촌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순박한 농촌생활을 통하여 정신적 평정을 찾고 本

- 12) 《莊子·應帝王篇》: 「秦씨는 잘 때는 편안하게 잤고, 깨어나서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소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말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진정 믿을 수 있고, 그의 덕은 참으로 진실되어, 애당초 다른 사람들의 시비를 가리는 일에 빠져들지 않았다. (秦氏, 其臥徐徐, 其覺于予, 一以己爲牛, 一以己爲馬, 其知情信, 其德蓋真, 而未始入於非人.)」
- 13) 《莊子·山木篇》: 「임금께서 일단 강을 건너 바다에 떠가시면, 멀리 바라봐도 그 끝이 안 보이고, 가도 가도 끝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 배를 나란히 하여 강을 건널 때, 빈배가 와서 자기가 탄 배에 부딪히면, 아무리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도 성내지 않을 것입니다. …… 사람이 능히 나를 비우고 세상을 살아가면, 누가 그를 해지겠습니까! (君其涉於江而浮於海, 望之而不見其崖, 愈往而不知其所窮, …… 方舟而濟於河, 有虛船來觸舟, 雖有偏心之人不怒, …… 人能虛己以遊世, 其孰能害之!)」
- 14) 《莊子·達生篇》: 「무릇 술에 취한 사람은 수레에서 떨어지면 비록 다칠지라도 죽지는 않는다. 골절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으나 해를 입은 정도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 무아지경의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저 온전함을 술에서 얻음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하늘에서 온전함을 얻은 사람이야? 성인은 천지 자연에 몸을 감추고 있는 고로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다. 복수하려는 자는 상대의 명검 鑊干까지 부러뜨리지는 않고, 비록 성급한 사람이라도 날아 떨어진 기와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이로써 천하는 균등하게 평정이 되고, 고로 남을 공격하는 전란이 없어진다. (夫醉者之墜車, 雖疾不死, 背節與人同而犯害與人異, 其神全也, …… 彼得全於酒而猶若是, 而況得全於天乎? 聖人藏於天, 故莫之能傷也, 復讎者不折鑊干, 雖有忮心者不怨飄瓦, 是以天下平均, 故無攻戰之亂.)」

意 아닌 낙식에 대한 울분과 번뇌로 부터 벗어나기에 적합한 곳이지만, 愛國心과功名心으로 가득찬 가현이 평생의 소원인 중원회복의 열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은거지에서 유유자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전원생활을 즐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가현은 은거지인 帶湖와 瓢泉에서 자연과 더불어 한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하면서도 國家民族이 참극을 당한 데 대한 비통, 중원회복에 대한 강렬한 소망, 盡忠報國의 氣概, 일시적인 安逸만을 탐하는 主和派 인사들에 대한 질책과 분개 등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 등을 작품 속에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작품이란 일반적으로 작가의 생활이나 체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록 自意는 아닐지라도 田園에 정착한 후에 세속의 시름을 잊고, 자유롭고 구속이 없는 자연 속에서 소요하며, 한가롭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때로는 순박한 농촌생활을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려한 산수풍광과 한적한 전원풍경을 비교적 사실적이고 담담한 필치로 그려내기도 했다.

長期間의 田園生活 중에 도연명을 흠모하게 되어 그의 생활태도를 배우려 했고, 또 老莊의 인생관을 체득하게 되어 번뇌를 잊고 자연과 벗하며 세속을 초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平靜을 얻어 때로는 산수와 벗하며 安分自足하는 심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표출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세속을 초월한 달관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에서 例示한 작품 이외에도 가현은 술에 의존하여 은거생활의 무료함과 울적함을 달래보는 飲酒生活를 그려낸 작품과 晩年에 기력이 쇠잔해져 의기소침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 등도 있어 은거 기간 중의 詞作에서 표현된 내용이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가현이 은거 시기에 지은 詞作에는 겉으로는 평온하고 한적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평불만과 憂世悲憤의 격정이 흐르고 광달한 중에 침울함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邵廣銘 《稼軒詞編年箋注》，華正書局，臺北，1989
- 朱德才 《辛棄疾詞選》，人民大學出版社，北京，1993
- 劉斯奮 《辛棄疾詞選》，三聯書店，香港，1991
- 黃葵仁 《辛棄疾詞精華》，貴州人民出版社，貴州，1993
- 李東鄉 《稼軒辛棄疾詞研究》，通文館，서울，1985
- 薛祥生 《稼軒詞選注》，崑高書社，臺北，1985
- 張淑瓊 《辛棄疾(唐宋詞新賞第11卷)》，地球出版社，臺北，1990
- 常國武 《辛稼軒詞集導讀》，巴蜀書社，成都，1988
- 賀新輝 《宋詞鑑賞辭典》，北京燕山出版社，北京，1987
- 孫崇恩·劉德仕·李福仁 《辛棄疾研究論文集》，中國文聯出版公司，北京，1993
- 黃錦鎰 《新譯莊子讀本》，三民書局，臺北，1983
- 何湘瑩 《稼軒信州詞研究》，東吳大學 碩士論文，1993
- 郭靜慧 《辛稼軒山水田園詞研究》，國立臺灣師範大學 碩士論文，1998
- 李博·曾廣開 〈論莊子對稼軒詞的影響〉，《鄭州大學學報》，1989年 1期
- 項雅琴 〈摧剛爲柔 鬱氣內轉—辛棄疾婉約詞的特色〉，
《雲南民族學院學報》，1986年 1期

【中文提要】

辛稼軒所處的時代，是中原淪陷，宋金對峙的風雷激盪時代。一生滿懷著家國悲痛的他，一心一意想要恢復北方的故土，然而終不能受到重用，不得已隱退於帶湖和瓢泉長達二十年之久。這一段期間，是他政治上受壓抑的年代，但同時也是他創作上大豐收的年代。現存的六百三十餘首稼軒詞中，絕大多數都作於這一時期。可以說，稼軒最出色的作品，幾乎都寫於此期。

在長期隱居生活中，稼軒的心情始終處於矛盾狀態，一方面寄情田園，流連山水，寫下了大量田園詞·山水詞·閑適詞等，超塵脫世，表現出平靜閑適的心境；一方面却每每不能自己，閑適平淡中，吞吐其抑鬱不平之氣。

由於稼軒報國無路，不得不落職歸耕，因此他的詞裏常常表現出內心的矛盾和苦悶；有時追憶年輕時代和敵人戰鬥情況，寄託了自己深厚的抗金愛國感情；有時描寫壯志未酬，退隱田園的苦悶，表現了對南宋朝廷主和派權奸的不滿；有時讀

美友人的才華，並對他的遭遇表示同情，流露出無限惜才的情感，同時也寄託了自己懷才不遇的感慨。

由於稼軒在接近農村的同時，也飽覽了自然風光，所以在他的詞中也表現了喜愛農村·樂於過田園生活的心情：有時用白描手法生動地描寫美麗的山水景物和閑適的田園生活，表現了自己熱愛農村和安分自足的心情：有時通過自然環境和農村風習的描寫，讚美了農村生活的淳朴：有時受到陶然明和莊子的影響，詞中表現樂觀曠達·不阿附世俗的思想感情。

但是總體上說，由於二十年不得已的隱居期間，稼軒的心情時處於行藏用舍的矛盾中，現實和理想的衝突，回旋激盪出複雜多樣的思想情感，因此稼軒隱居時期詞作之內容裏面，還是常常於曠達中顯出沈鬱，於閑適中露出憤激，在山光水色的背後，含蘊着懷才不遇的悲哀。

【主題語】

宋詞 稼軒 隱居時期 詞作